

##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정민수 \*\*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을 중위동원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영역이 등장한 한국에서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된 군집화 현상을 사회운동론의 네트워크적 연구 동향에 따라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시민의 신문>의 “2005년 시민사회 참여 네트워크”이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결사체들이 연대활동을 한 기록을 신문사 DB에서 추출하여 단체, 사건, 연대강도를 (i, j, d)의 행렬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사건 자료에서 '공동성명 발표'와 '공동행동'을 강한 연대로 규정하고 이 자료를 (ina, jmb, d)의 연합 행렬로 변환하였다. 분석방법은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활동영역별로 네트워크 지표의 영향력 차이를 알아본 후에(영역 내 분석), 주요한 역량 단체의 군집화를 다차원척도로 살펴보았다(영역 간 분석).

시민사회 결사체들은 조직속성 변수(설립연도, 회원수, 예산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네트워크 지표(지위, 등위성 등) 차이를 보였다. 2005년 현재 지위 지표가 높은 단체들은 환경 및 지역활동 영역의 결사체들이거나 여성 단체일 가능성이 컸다. 관계맺기는 그 선행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만을 추출하여 정교화한 결과 상대적으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환경 및 지역 단체들의 중심성이 더 강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

\* 이 연구에는 <시민의 신문>에서 수행한 "2005년 시민사회의 참여 네트워크" 자료가 활용되었다. 자료 이용을 허락해 주신 <시민의 신문>과 강국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을 이끌었던 노동/정치 영역의 단체들은 예상과 달리 네트워크 효과가 없었으며,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은 예산규모가 영세하였고 다만 90년대 이후 전반적 회원수가 다소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도의 결과는 시민사회 내부의 근집화가 몇몇 거대 노동/정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사체들이 논제형성을 위하여 중위동원을 한 결과 시민사회에는 활동영역이 유사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와 이질적인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이미 설립되었던 환경 및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내부의 네트워크가 발달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노동/정치 단체들은 집단 내부의 네트워크 보다는 소수 연합단체들의 집단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세력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정치과정론과는 별도로 사회운동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운동, 시민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위동원, 네트워크 분석

## 1. 서론

시민사회 영역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율적인 담론장으로 기능하면서 제3의 섹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들은 사회운동의 행위자로서 시민사회 영역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며 논제 만들기에 참여한다. 특히 사회운동 단체들은 연대체와 집합행동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결사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만들기가 작동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낳은 근집 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 네트워크가 가진 사회운동론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시민사회 조직들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와 같은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용어만큼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 기능하는 영역은 복잡한데, 이들은 정부와 시장의 갈등을 조절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공간을 조성한다. 그리고 계약의 실패에 의한 외부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이타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증진한다. 그래서 전지구적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를 기획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비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각각의 사례들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운동을 일반화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을 구분하는 다양한 입장들은 이 결사조직의 공익적 속성을 강조하거나 이익의 귀속형태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내부자원과 규칙을 갖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상이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조직의 속성은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을 갖춘 민간단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환경, 개발, 인권, 여성, 구호사업이 된다. 여기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가진다. 국제원조 NGO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이 특징은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의존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배타적 이익 추구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필연적으로 관계맺기 활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회운동조직들(SMO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네트워크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시민사회 조직들은 그 비영리성으로 인하여 경쟁과 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협동과 연대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Gerhards and Rucht 1992; Keck and Sikkink 1998; Osa 2003). 즉, 참여민주주의를 만드는 근

간으로서 결사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전략이 시민사회영역의 저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리켜 “강제되지 않은 인간적 결사체의 공간이면서 공동체를 충족시키는 가족, 신념, 이해 및 이데올로기를 위해 형성된 네트워크 집합체”(Walzer 1998, 123-124)라고 한다.<sup>1)</sup> 그러므로 시민사회 영역은 경쟁보다는 연대와 동원이 두드러지는 매개적 공간(mediating space)이며, 이러한 활동은 매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결사체 군집을 낳게 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시민사회 결사체의 활동을 정리한 “2005년 시민사회 참여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90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협동과 연대의 결과로 나타난 결사체의 군집 양상을 살펴보았다.

## 2. 중위동원 이론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분석

집합적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원은 미시동원(micromobilization)에 있다(McAdam 1988). 이것은 자원 결사체와 공공영역에 대한 프레임 형성을 위하여 개인이 조직으로 동원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제가 조직 간에도 발생한다는 중위동원(mesomobilization) 이론이 주장되었는데(Gerhards and Rucht 1992), 이것은 운동집단의 연대성 효과가 결사체의 역량과 과업수행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즉, 미시동원이 개인을 동원의 자원으로 하는 반면에 중위동원은 한 조직에 의한 여러 운동조직들의 동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동원이란 개념은 사회운동론에서 흔히 사용되

1)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방법이 시장이 아닌 사회운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주요한 논의들이 있었다. Dian(2003a)는 네트워크 분석이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McAdam(2003)은 이 분석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차가 아직 잔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현상을 동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았다.

지만,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참여 네트워크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동원현상이 조직 수준에서 일어날 경우 중위동원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위동원 네트워크는 하나의 집단 또는 조직이 공동의 목표 아래 동질화되는 것이며 연대를 통하여 정치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동원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운동을 개인이나 조직의 집합 또는 연대로 이해할 경우 네트워크는 비유가 아닌 실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데(Diani 2003a, 1-17), 특히 사회운동 주체들이 맺는 관계가 환원불가능하고 운동 과정에 있어서 비가역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라면 네트워크는 구조화된 것이며 주체들의 기회나 제약조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cAdam 2003, 281-298).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경험적 접근은 관계의 밀도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중심성 분석과 등위성 분석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반응변수 또한 참여의 정도, 조직구조, 태도 등으로 정교화되고 있다(Diani 2003a, 13). 예를 들면, 이웃관계 점수(degree score)를 가지고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고 OLS 회귀분석의 계수값으로 연합 네트워크와 브로커의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Diani 2003b, 105-120). 사회운동에는 여러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동원되는데(Gould 1991), 시민사회 영역의 논제가 다양할수록 그러한 관계 맺기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하여 결사체가 논제 형성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더욱 그러하다(윤상철 2005a).

그러므로 사회운동 분야에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되 중위동원 이론에 기반하여 결사체들이 가지는 연대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운동 결사체들이 연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개별 조직의 역량에 의

한 효과와 네트워크로 인한 효과를 각각 탐색하고 이러한 효과의 결과인 군집 양상을 파악하여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전체 지형도를 개략적으로 그려볼 것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행위자와 사건의 쌍대성(duality, Breiger 1974)’에 기반하여 같은 사건에 참여한 단체는 연결관계가 있으며 결사체는 그들의 활동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논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성되었다. 결국, 이 연구는 사건 참여에 기반하여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제안을 하는 동시에 한국과 같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다양한 결사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에서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군집(cluster)’을 형성하게 되는가를 탐구한다. 단, 여기서 군집은 가설검증의 형태보다는 사회운동단체의 연대는 공식적 활동영역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편견을 기각하고 또 다른 거시적 구조로 작동한다는 기술적 형태로 정의되고 사용될 것이다.

### 3. 분석대상 및 방법

#### 1) 연구자료 및 연구절차

연구의 원자료는 2006년 「시민의 신문(NGO Times)」에서 창간 13주년을 맞아 조사한 “2005년 시민사회의 참여 네트워크”이다. 이 자료는 2005년 한 해 동안 자발적 결사체들이 연대활동은 한 사실을 시민의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단체, 사건, 연대강도라는 (i, j, d)의 행렬로 정리한 일종의 참여 네트워크이다.<sup>2)</sup> 연대의 강도란 연합조직 결성, 공동

---

<sup>2)</sup> 시민사회 또는 사회운동사적으로 2005년은 총선연대 이후 시민사회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가 참여정부의 위기와 함께 표출되기 시

집회, 시위를 함께한 경우에는 ‘강한 연대’로, 토론회, 심포지엄, 입법청원의 경우에는 ‘중간 연대’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약한 연대’로 정의되었다.<sup>3)</sup> 이렇게 수집된 원자료는 모두 7,982(단체)\*586(사건)의 행렬로 구성되었다. 즉, 2005년에 자발적 결사체가 공동행동을 한 사건은 총 586건이었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 각각의 총합은 7,982개였다. 연구를 위하여 이 자료에서 사건참여의 강도가 제일 크고 분명한 강한 연대 자료만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796(단체)\*52(사건)의 행렬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과정은 의례적이고 명목화된 공동참여를 배제하여 연대의 강도와 질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행렬의 추출과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자료를 협업 행렬(affiliation matrix)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SAS/IML을 이용하여 (ina, jmb, d)의 협업 데이터를 3가지 참여 강도의 (in\*jm) 행렬로 변환하여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A단체가 10, 25, 50이라는 3개의 사건에 참여했을 경우 (A\*10), (A\*25), (A\*50)의 합동 행렬이 되는데 이것을 n개의 단

---

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결사체들을 결집시킨 주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택범대위 결성(2월 22일), 표현과창작의자유지키기범국민대책위 발족(2월 23일), 평택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7.10평화대행진(7월 10일), 수도권 인구집중 도시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 46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7월 21일), 핵폐기장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8월 30일), 양극화해소연대 발족(9월 22일), 노동양극화해소 위한 비정규입법 연내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10월 05일), 소수부유층과 대기업 위한 '그들만의 감세' 반대(10월 12일),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안 국회서명작업 돌입(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11월 11일),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국회에 촉구 (11월 30일), 새만금국민회의(준) 출범(12월 13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인사 353명, 재판부에 새만금 문제 합리적 해결을 요청(12월 16일), 새만금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12월 21일). 하나 밝혀둘 것은 이처럼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사건을 매개로 하여 네트워크 자료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상이한 두 단체가 링크가 있다고 분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sup>3)</sup> 연대의 강도는 1차적으로 활동유형에 기반하여 분류를 하고, 2차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 전문자와 학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나뉜 것이다. 2차 분류에서는 개별 사건들의 의미와 참여단체들의 역할을 따져 명분상 단체명만 올렸거나 실질적으로 참여의 강도가 낮은 경우를 재분류를 하였다. 그러므로 강한 연대라는 것은 그 형용사적 수식의 느슨함과는 달리 실제적인 관계맺기의 지속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체만큼 열거한 정보가 합동 자료이다. 이것을 각기 단체와 사건 중심의 행렬로 변환하면  $(in*jm)$ 의 합동 행렬이 된다(796\*52). 둘째는 합동 네트워크를 다시 이웃 행렬(adjacency matrix)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이원 네트워크(two-mode network)라고 불리는 자료를 일원 네트워크(one-mode network)로 변환하는 것으로 각기 단체와 사건 중심의 행렬 형태인  $(in*im)$  및  $(jn*jm)$ 로 만드는 것이다. 위의 참여 네트워크가 단체와 사건 간의 자료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가시화하는 자료인 반면에, 일원 네트워크는 단체 또는 사건 중 하나를 기준으로 이원 네트워크 내에 숨어 있는 일원적 구조를 계산하여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x1, x2, x3라는 사건에 y1, y2, y3라는 단체가 참여한 경우 사건이 단체를 매개하는 중개자라고 보고 같은 사건에 참여했다면 단체들에 관계, 즉 링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참여단체와 사건 각각의 연결망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방법도 있으나(은수미, 2004) 여기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단체들의 관계맺기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sup>4)</sup>

네트워크 자료변환과 분석에는 NetMinerII(ver. 2.63)가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위의 이웃행렬을 대칭화(symmetrized)하고 이것의 값을 이분화(dichotomized) 하였으며<sup>5)</sup> 자기상관을 없애기 위해 주대각선 값을 0으로 처리한 (796\*796)의 강한 연대 행렬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4) 네트워크 분석에서 행렬 자료의 변환은 현실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집합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결사체들 간의 관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이웃관계(adjacency matrix)를 직접 자료화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관계의 의미에 의도성이 개입되어 거시적인 군집을 파악하는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회운동 사건을 매개로 하는 이원 자료를 일원자료로 변환하여 개별 결사체의 의도하지 않은 거시적 결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사회운동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다.

5) 행렬의 특성상 방향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칭화를 하였고 구조적 등위성 등의 분석을 하기 위한 절차로 값을 이분화하였다.

을 위하여 한 차례의 자료 수집이 더 이루어졌는데 각 단체들의 설립연도, 회원수, 예산규모에 관한 자료였다. 이러한 속성자료는 2006년에 간행된 <한국민간단체총람>을 이용하였고 결측값은 웹페이지 검색을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단체의 활동유형에 대한 명목형 구분을 하였다. 편람에 수록된 범주는 모두 13개 종류인데 탐색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단체들을 통합하였고 최종적으로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1) 사회일반, 2) 환경, 3)·노동·정치·평화·통일·언론·학생·종교<sup>6)</sup>, 4) 여성·건강·국제원조, 5) 지역사회이다.<sup>7)</sup>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사회일반 단체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범주가 반응변수로 이용되었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자료의 원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응분석을 이용하여 사건과 단체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행위자간 연결망으로 변환한 결과를 이웃관계 네트워크로 살펴본 후에 이들의 위계화 정도를 중앙성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군집화 경향을 계량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군집화 경향이 시민사회 영역의 약진이 두드러진 90년대를 전후하여

6) 종교단체의 조직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영역에 그들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O'Neill 1989, 28).

7) 국내외에는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신광영 1996, 80-123; 박상필 2001, 53-80; 99-132; Skocpol 2003, 173; 주성수 2004, 66-82). 특히, 가장 개선된 국제적 분류방식인 비영리조직에 대한 국제분류(ICN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에 따르면, 서비스 형태에 따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개발 및 주택, 법률시민정치, 박애활동 및 자원봉사, 국제교류 및 원조, 종교, 직능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Salamon and Anheier 1997, 70-74).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시민의 신문에서 펴낸 『한국민간단체총람』이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조사 대상이지만 비영리병원, 사립학교,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람에 포함된 단체들을 모두 자발적 결사체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분류 방식도 총람에 따라 13개 범주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영역 분류 중에서 다수는 네트워크 지 표상에서 중첩되었기 때문에 검약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6개의 범주로 기술적 통합을 하였다.

상이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에 따라 단체의 설립연대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였다. 넷째, 다차원적도분석을 통하여 조직들 간에 군집화 현상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절차는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네트워크가 기존의 정치과정론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회운동의 결정요인이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사건에 기반하여 구조화되는 시민사회의 특성을 관계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이기도 하다.

## 2) 시민단체 자료의 특성

시민사회단체 연구는 경험적 자료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윤상철 2005a), 이들 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공식 영역에서 조직자원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경우 법인으로서登記되어 대외적으로 공시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의 외연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동 참여 연결망이라는 경험적이고 공식적인 자료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포괄성과 배타성의 문제가 없고, 또한 단체간 연대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없다. 한편으로 시민사회 단체란 무엇이나에 대한 내포적 의미 역시 문제가 되어 왔다.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 상이한 활동영역의 조직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개별 사건들을 통해 강한 연대로 분류된 단체들을 모두 시민사회 단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발적 결사체로 보았다. 즉, 형식적인 정의보다 실질적인 연대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참여 연결망 자료의 기초통계는 <표 1>과 같다.<sup>8)</sup> 그런데 여기에는 속성변수 활용의 제한이 있었다. 즉, 분석

<sup>8)</sup> 기술통계치 결과는 최근 시민사회 조직 현황조사와 대체적 일관성을 가졌다(김준기

대상 단체는 796개이지만 설립연도의 정보는 538개, 회원수는 288개, 예산규모는 236개 단체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고유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인 속성값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조작화 과정을 거쳤다.

〈표 1〉 연구대상 자발적 결사체들의 2005년도 조직 특성 (N=796)

	보고된 단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설립연도	538	1903	2006	1993.59	13.324
회원수	288	6	940774	13575.41	72901.101
예산규모	236	200	7900000	115346.72	664052.839

\* 보고 되지 않은 정보는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음

첫째 단계는 결측값의 보완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예산과 같은 지표들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연도 자료조차 얻기가 쉽지 않다.<sup>9)</sup> 따라서 일반적인 계량분석의 자료원보다 결측값이 많았고 이에 대한 보정이 요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sup>10)</sup> 보간법이란  $y=f(x)$ 처럼 완전 함수가 알려지지 않은 조건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y=ax+b$ 라는 직선 함수를 상정하여 결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30도에서 밀도가 100이고 40도에

2004; 주성수 편 2006).

- 9) 소규모 단체들은 사무실과 상근자가 없고, 웹사이트마저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외형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측값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선형보간법으로 이를 보완하였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Exp(B)값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의 <표2>와 <표3>에서 제시될 네트워크 지표는 다른 독립 변수보다 베타값의 영향력을 제시된 수치보다 더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계적 유의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다.
- 10) 설명변수들의 선형성 여부는 개별 산포도와 각 조직의 링크 수를 반응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의 Q-Q plot을 통해 판단하였다. 선형 추정이 아닌 곡선 추정 방법도 있으나(Smoothing 또는 Spline fitting) 여기에서는 다항식으로 결측값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값의 증폭을 가져올 우려가 많아 보수적인 방법을 택했다.

서 밀도가 90일 경우 34도의 밀도를 구하여야 한다면, 온도를  $x$ 로 놓고 밀도를  $f(x)$ 값으로 한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f(34)$  즉,  $y=m(x-a)+b$ 라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m(\text{기울기})=(90-100)/(40-30)$ 이며  $a=30, b=100$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회원수와 예산은 자연수의 분포를 가지기보다 인위적인 구간에 넓게 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위수를 크게 하면서 표준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측값을 편의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표 1>에서 제시된 속성값들의 N에서 모수인 796에 미달하는 부분은 보간법을 통해 추정한 값으로 대체되었다.

둘째 단계는 자료원의 산포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속성변수들은 단체의 내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즉, 값들의 범위가 넓고 표준편차가 크며 평균과 중위수의 불일치 정도 역시 크다. 마치 키와 몸무게처럼 생물학적 규칙과 같은 것이 내재되지 않아서 값들의 산포 형태에 치우침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적 편포를 보이는 회원수와 예산값에 로그변환을 취하였다(Hamilton 1996).

#### 4. 분석결과

##### 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군집화의 기초자료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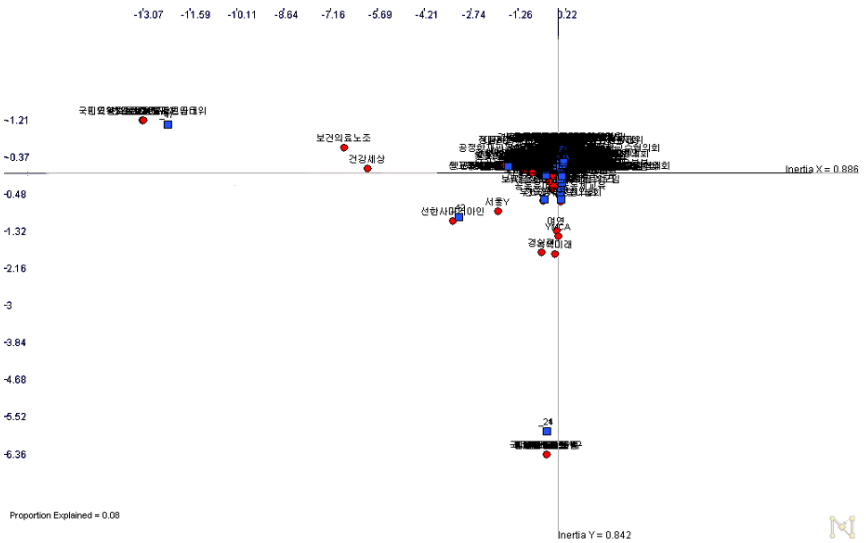
###### (1) 대응분석과 이웃관계

<그림 1>은 SAS/IML 변환만을 마친 단체\*사건의 행렬을 대응분석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응분석은 분할표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드러내는 탐색적 자료분석의 방법

으로 (xj, xk)가 있을 때 두 점간의 차이를 제공하여 합한 것에 1/2승을 한 것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여기서 D는 두 좌표에 대한 추정 거리값이다.

$$D_{jk} = \left( \sum_{l=1}^p |x_{ij} - x_{ik}|^2 \right)^{1/2}$$

〈그림 1〉 2005년 시민사회의 참여 사건과 단체 간의 대응분석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체와 사건의 참여관계는 좌표평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2사분면 끝을 보면 47번 사건(국민요양보장제도쟁취연대회의 준비위원회결성; 11월 24일)에<sup>11)</sup> 국민요양보장장애인공대위,

11)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가건연, 건강세상, 국민요양보장제취를위한장애인공대위, 의료소비자,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빈곤문제연구소, 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이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빈곤문제연구소, 의료생협연대, 사회보험노조가 연대하고 있고, 아래의 3사분면에는 21번(아펙반대국민행동발족; 6월 1일)과<sup>12)</sup> 24번 사건(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출범; 6월 22일)을<sup>13)</sup> 중심으로 지구촌나눔운동, 제이티에스,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복지재단, 플랜코리아, 월드비전, 한민족복지재단, YWCA, 우리민족, 에이즈퇴치연맹, 세이브더칠드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응집하고 있다. 이 이외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작은 군집을, 여성단체연합, YMCA, 경실련, 녹색미래가 다른 군집을, 마지막으로 서울YMCA와 선한사마리아인이 42번 사건(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출범; 10월 21일)에<sup>14)</sup>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 및 국제원조 분야의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내적 결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협동 네트워크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형태[즉, co-membership network]로 변환한 것이 <그림2>이다. 네트워크의 경향을 보기 위하여 노드에 활동유형(색깔)과<sup>15)</sup> 예산규모(노드 크기)를 반영하였다.

12)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우리만화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반미청년회, 투기감시, 한국가톨릭농민회, 민의련, 보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연련, 전국연합, 민교협,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외노협, 전농, 민노총, 전민련, 전여농,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공노, 민주노조연, 천정연, 통일광장, 한노사연, 한노정연, 한총련, 비정규센터, 한청,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 인천민중연대, 충북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코파, 범국민교육연대, 민중연대, 부산시민행동이다.

13)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민교협, 에너지관리공단노조, 에너지대안센터, 한전노조, 과거노조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조,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 한수원노조, 환경련이다.

14)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 경실련, 서울YMCA,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이다.

15) 활동유형인 평화·통일, 환경, 노동·정치·언론, 학생, 종교, 여성, 건강, 지역사회, 사회일반, 국제원조에 각기 1-10까지의 일련번호를 준 다음에 좌측으로 갈수록 푸른색을, 우측으로 갈수록 붉은색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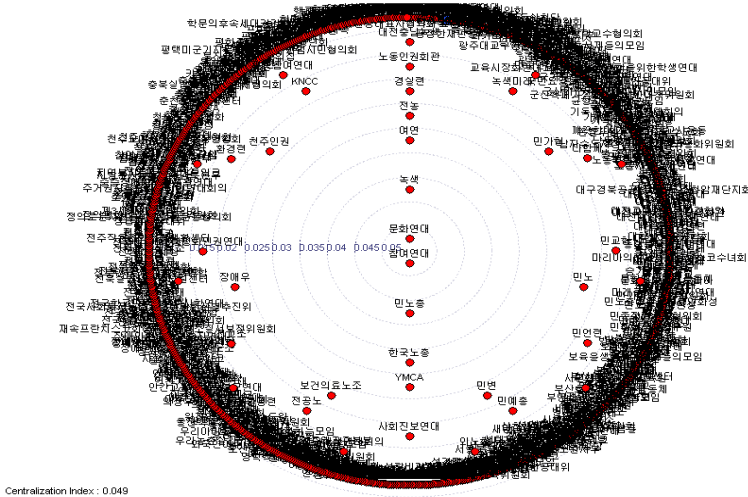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더욱 지지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여 결사체적 관계맺기의 거시적 결과를 살펴보았다.

## (2) 중심성 분석과 위계화

<그림3>은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개별 단체들의 지위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이웃관계를 중앙성 지표를 통해 상대적 지위로 나타낸 것으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C는 중앙성 지표이며, Z는 각 노드의 상대적 지위이고 i와 j는 주고받는 링크의 수이다.

$$C_i = \frac{\sum_{j=1}^n (Z_{ij} + Z_{ji})}{\sum_{j=1}^n \sum_{j=1}^m (Z_{ij})}$$

<그림 3> 중심성 분석을 통한 결사체들의 이웃관계 지위 지표



지위분석은 링크를 맺고 있는 관계성이 주어진 구조라고 상정할 경우, 그 구조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율성을<sup>16)</sup> 의미한다. 이것은 개별 단체의 링크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네트워크의 총 노드수는 796개이고, 링크수는 52,871개였다. 자기중심 연결망의 평균 크기는 132.842(S.D.=97.489)이었고, 평균 밀도는 0.88(S.D.=0.201)이었다. 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림3>의 중앙성 분석에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단체들이 된다. 결과에 따르면, 참여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전농, 경실련의 순으로 중앙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부문의 활동을 하는 결사체군들은 상대적으로 아젠다를 만들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논제를 프레이밍 하는 상당한 역량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논제라는 것은 그것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단체가 많고 이들이 적극적인 논제 만들기에 참여할 경우 효과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계량분석을 통한 군집화의 가능성 검토

지금까지 시민사회 결사체들의 네트워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의 관계맺기가 상이한 군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지 그들이 네트워크상에서 가진 지위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군집을 낳는 결정요인이 되

16) 네트워크는 관계성을 통하여 구조적 제약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제약에서 개별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비제약성을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노드의 네트워크 지표, 속성값, 그리고 노드와 관계 맺고 있는 노드들의 지표를 통해서 결정된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집현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사체 네트워크가 조직 내 활동으로만 국한된다는 편견을 귀무가설처럼 간주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민사회에서의 논제 만들기는 주로 회원수가 많은 연합단체의 군집화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역시 조직이나 조직군의 역량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활동 영역별로 시민사회단체의 특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활동영역별로 단체들의 네트워크 속성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반응변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 분류한 13개 활동영역을 대응분석의 결과에 따라 그 활동영역이 유사한 5개의 범주로 나눈 것이다(환경, 노동, 여성/건강, 지역사회, 사회일반). 기준집단은 특별한 활동영역이 없이 일반적 이슈에 모두 관여하는 사회일반 단체로 하였다. 설명변수 중에서 통제변수는 회원수와 예산이며<sup>17)</sup>, 네트워크 변수는 중심성 분석의 결과인 지위지표와 구조적 등위성 지표, 구조적 공백 지표(효과성, 집합성, 위계성)를 투입하였다. 만약 네트워크가 조직 내 활동으로만 국한된다면 반응변수의 집단들 간에 네트워크 지표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 시간 효과가 개입된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초기에 설립된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공론장이 형성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은

---

17) 결사체에 대한 군집화를 검토하는 작업도 조직론적 배경에 따라 가능한 모든 통제변수를 투입하여야 하나 현재 시민사회 결사체들에 대한 비교가능한 공통 정보가 워낙 부족하여 위의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고 설립연도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의 구분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직특성 변수만으로 OLS 회귀분석시 설명력과 계수값에 특별한 통계적 의미가 없었고, 모든 변수들의 표준오차 값이 2.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Pseudo-R2값이 일반적인 사회과학 계량분석 결과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조직론적 통제변수의 부족은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별로도 추가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시계열적인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운동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설립시기의 효과가 조직 역량이나 관계맺기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설계 상의 통제는 아니기 때문에 90년대 당시의 네트워크 분석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의 모형 설계는 결사체의 공식적 활동영역별로 네트워크 구조화의 정도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던 시민사회 단체들의 현재적 의미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1)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체자료)

<표2>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다중 명목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지위 및 집합화, 효율성 지표가, 노동·정치 부문에서는 회원수 지표가, 여성·건강 부문에서는 지위와 등위성 지표가,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지위, 등위성, 효율성, 위계화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선 조직 속성변수를 보면, 노동·정치 부문의 회원수가 기준집단인 사회일반 단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B=1.434$ ;  $95\%CI:1.099-1.870$ ). 이것은 현재의 사회운동 조직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보인 조직 속성변수였는데 90년대 이전의 비공식적 결사체들이 공식화되었고 각종 연합 단체들이 생성되어 노동과 정치 영역의 결사체 군집이 거대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변수를 보면, 환경 부분의 경우 집합화 지표( $B=0.008$ ;  $95\%CI:1.003-1.013$ )와 지위 지표( $B=0.005$ ;  $95\%CI:1.002-1.00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준집단인 사회일반 단체들보다 높았으며 지역사회 부분의 경우 지위 지표( $B=0.005$ ;  $95\%CI:1.003-1.007$ )와 여성/건강 부문에서의 지위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준집단보다 높았다( $B=0.003$ ;  $95\%CI:1.001-1.006$ ). 그러나 지역사회 부문에서

위계화는 오히려 기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B=0.844$ ;  $95\%CI:0.727-0.979$ ). 중심성 지표인 지위 변수는 링크의 갯수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에서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지위 지표가 높은 단체들은 환경, 지역사회, 여성/건강 부문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환경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네트워크의 효율성도 좋았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집합성 지표가 여타 영역의 단체들보다 높아 네트워크 집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 단체들은 다른 영역의 단체들보다 위계성 지표가 낮아 특정 결사체에 대한 의존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 이후 지역 사회운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의 영역이 공식화되면서 비공식 부문의 단체들이 진입하였고, 더불어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의 대규모 약진과 연합단체 구성에 따라 현재의 시민사회 공론장은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맺기의 정도가 높은 단체들은 환경, 여성/건강, 지역사회 영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았고, 지역사회와 여성/건강 단체는 네트워크 상에서 구조적 등위성이 유사하여 같은 영역 내의 단체들 간의 위상이 기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환경, 지역사회 영역의 결사체들이 우수했다. 특히, 환경 영역의 집합성과 지역사회 영역의 위계성은 활동영역에 따라 상이한 네트워크 군집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결사체 간의 군집화 현상을 직접 증명하기는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명목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사회일반 집단에 비하여 각각의 단체들이 상이한 네트워크 지위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정교화 분석을 하였다.

〈표 2〉 결사체들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활동영역별 차이

공식적 활동영역	B Est.	Std. Err.	Wald	Signif.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환경 부문	Constant	-3.863	.972	15.795	.000		
	member_L	.089	.175	.258	.611	1.093	.776 1.539
	budget_L	-.074	.230	.104	.747	.928	.592 1.457
	Status	.005	.001	16.989	.000***	1.005	1.002 1.007
	EQUIVALENCE	.000	.000	.258	.611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8.759	.003**	1.000	1.000 1.000
	AGGREGATE	.008	.003	8.960	.003**	1.008	1.003 1.013
	HIERACHY	-.110	.061	3.289	.070	.896	.796 1.009
노동/정치/평화 부문	Constant	-.540	.723	.559	.455		
	member_L	.360	.136	7.069	.008*	1.434	1.099 1.870
	budget_L	-.248	.180	1.906	.167	.780	.549 1.110
	Status	-.001	.001	1.318	.251	.999	.997 1.001
	EQUIVALENCE	.000	.000	1.825	.177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1.261	.261	1.000	1.000 1.000
	AGGREGATE	-.002	.002	1.272	.259	.998	.994 1.002
	HIERACHY	.009	.014	.457	.499	1.009	.982 1.037
여성/건강/국제원조 부문	Constant	-1.761	1.015	3.010	.083		
	member_L	-.205	.209	.960	.327	.815	.540 1.228
	budget_L	.428	.242	3.128	.077	1.534	.955 2.464
	Status	.003	.001	8.017	.005**	1.003	1.001 1.006
	EQUIVALENCE	.000	.000	18.271	.000***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2.514	.113	1.000	1.000 1.000
	AGGREGATE	-.004	.003	2.121	.145	.996	.990 1.001
	HIERACHY	.007	.015	.216	.642	1.007	.978 1.038
지역사회 부문	Constant	.421	.829	.258	.612		
	member_L	-.256	.173	2.183	.140	.774	.551 1.087
	budget_L	.016	.205	.006	.938	1.016	.680 1.519
	Status	.005	.001	21.013	.000***	1.005	1.003 1.007
	EQUIVALENCE	.000	.000	22.242	.000***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3.935	.047*	1.000	1.000 1.000
	AGGREGATE	-.002	.002	.534	.465	.998	.994 1.003
	HIERACHY	-.170	.076	5.019	.025*	.844	.727 .979
-2 Log Likelihood	2093.779						
Pseudo-R2 (Nagelkerke)	.327						
N	796						

\* P<.05, \*\*P<.01, \*\*\*P<.001

§ 종속변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제시된 개별 단체의 13개 활동영역 분류를 네트워크의 유사성에 따라 5개 영역으로 통합한 것임(기준집단: 사회일반 조직)

## (2)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 (1990년대 이전 설립단체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만을 추출하여 정교화 분석한 결과인 <표 3>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지위(status) 및 집합화(aggregate)<sup>18)</sup> 등이, 노동·정치 부문에서는 예산규모(budget\_L)가, 여성·건강 부문에서는 지위와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sup>19)</sup>,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회원수(member\_L), 효과성(effective), 지위, 구조적 등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로 나타났다. 우선 조직 속성변수를 보면, 노동·정치 부문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기준집단인 사회 일반 단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B=-0.614$ ; 95%CI:0.296-0.989), 지역사회 부문의 경우에는 단체의 회원 규모가 사회 일반 단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을 가능성이 높았다( $B=-0.786$ ; 95%CI:0.248-0.836).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이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영역별 조직역량이 다소 상이했음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변수를 보면, 환경 부문의 경우 집합화 지표( $B=0.017$ ; 95%CI:1.006-1.028)와 지위 지표( $B=0.007$ ; 95%CI:1.003-1.0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지역사회 부문의 경우 지위 지표( $B=0.007$ ; 95%CI:1.004-1.01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환경과 지역사회 영역의 지위 지표는 전체 회귀분석 결과보다 수치가 증가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전체 자료의 경우보다 25% 가량 증가하여 Pseudo-R2의 설명력이 57.1%로 높게 나타났다.

18) 이 개념은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분석에 의해 계산되는 4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구조적 공백은 중복성이 없으면서 제약성이 낮은 효과적인 구조적 위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효과성(effective size)은 각 노드가 갖고 있는 관계의 수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계의 수의 평균을 뺀 값이다. 즉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적은 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나의 네트워크 효과성이 커진다. 제약성(constraint)은 이항 관계의 제약성을 모든 행위자에 대해서 더한 값으로 각 행위자의 제약성을 나타낸다. 즉, 제약성이 낮을수록 구조적 자율성이 커져 활동 역량이 증가한다. 위계성(hierarchy)은 각 노드들의 제약성이 어느 정도 특정 행위자에게 집중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집합성(aggregate)은 네트워크의 집적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19) 구조적 등위성은 두 행위자 사이에 링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노드와 맺는 관계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표 3〉 결사체들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활동영역별 차이†

공식적 활동영역	B Est.	Std. Err.	Wald	Signif.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환경 부문	Constant	-8.264	1.967	17.652	.000		
	member_L	-.041	.304	.018	.892	.960	.529 1.741
	budget_L	.063	.428	.021	.883	1.065	.461 2.462
	Status	.007	.002	12.942	.000***	1.007	1.003 1.011
	EQUIVALENCE	.000	.000	3.010	.083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16.410	.000***	1.000	1.000 1.000
	AGGREGATE	.017	.006	8.807	.003**	1.017	1.006 1.028
	HIERACHY	-.076	.049	2.459	.117	.927	.843 1.019
노동/정치/평화 부문	Constant	.285	1.252	.052	.820		
	member_L	.324	.211	2.349	.125	1.382	.914 2.092
	budget_L	-.614	.308	3.980	.046*	.541	.296 .989
	Status	-.002	.001	1.588	.208	.998	.996 1.001
	EQUIVALENCE	.000	.000	2.591	.107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1.367	.242	1.000	1.000 1.000
	AGGREGATE	-.003	.004	.778	.378	.997	.989 1.004
	HIERACHY	.029	.029	1.007	.316	1.030	.973 1.090
여성/건강/국제원조 부문	Constant	-1.238	1.227	1.017	.313		
	member_L	-.203	.266	.582	.445	.816	.484 1.375
	budget_L	.441	.299	2.172	.141	1.554	.865 2.794
	Status	.003	.002	4.289	.038*	1.003	1.000 1.006
	EQUIVALENCE	.000	.000	11.479	.001**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761	.383	1.000	1.000 1.000
	AGGREGATE	-.004	.004	.969	.325	.996	.989 1.004
	HIERACHY	-.033	.072	.209	.648	.968	.840 1.114
지역사회 부문	Constant	-.468	1.375	.116	.733		
	member_L	-.786	.310	6.443	.011*	.456	.248 .836
	budget_L	.379	.325	1.355	.244	1.460	.772 2.762
	Status	.007	.002	19.879	.000***	1.007	1.004 1.011
	EQUIVALENCE	.000	.000	16.579	.000***	1.000	1.000 1.000
	EFFECTIVE	.000	.000	6.178	.013*	1.000	1.000 1.000
	AGGREGATE	.001	.004	.118	.731	1.001	.994 1.009
	HIERACHY	-.142	.122	1.354	.245	.867	.683 1.102
-2 Log Likelihood	895.431						
Pseudo-R2 (Nagelkerke)	.571						
N	406						

† 설립연도가 1990년 이전인 단체들만 추출하여 정교화 분석한 결과임

\* P<.05, \*\*P<.01, \*\*\*P<.001

§ 종속변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제시된 개별 단체의 13개 활동영역 분류를 네트워크의 유사성에 따라 5개 영역으로 통합한 것임(기준집단: 사회일반 조직)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환경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하는 단체들이 먼저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활동을 하여서 나타난 효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 네트워크에는 지명도가 중요한데 이것은 설립연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네트워크에 먼저 진입한 단체일 수록 그러한 효과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현재의 시민사회영역을 증화하는데 유리한 기회 조건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노동 영역의 단체들은 예산의 규모가 현저히 작아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설립된 같은 영역의 단체들보다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부문 단체들의 위계성 효과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부문의 집합화 효과는 그 계수값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는 활동영역에 따라 상이한 구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 단체, 그중에서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환경단체가 그들 내부의 군집화를 이끌고 있었다. 반면에 지역사회 부문의 결사체들은 지위 지표가 높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일수록 지역사회 풀뿌리 단체로 그 성격을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을 지배하여 왔던 정치과정론에 대하여 결사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소극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명목 로지스틱 분석 방법이 반응변수의 활동영역 간 차이

<sup>20)</sup> 이 연구자료는 2005년도의 사건 참여를 토대로 하는 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에서의 초기 진입자를 잡아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배제한다면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누적적 과정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90년대 이전에 있었으나 현재에는 사멸하고 없는 단체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분석을 하였다.

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결사체들 각각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은 이질적이지만 적극적인 군집화<sup>21)</sup>를 통해 시민사회 공론장에 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역량 단체들을 살펴보았다.

### 3) 다차원척도분석을<sup>22)</sup> 통한 군집화 현상 진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회운동조직(SMO) 간의 네트워크 유사성을 보여주는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군집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림 4>는 단체의 연결망을 c-MDS로<sup>23)</sup> 나타낸 것인데, 활동유형(도형의 모양), 규모(단체의 회원수), 조직형태(붉은색은 연합단체<sup>24)</sup>)의 속성값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다차원척도분석이란 상대적 거리로 개념화될 수 있는 자료, 즉 이웃 행렬 자료를 유클리디안 거리 계수를 산출하여 2차원 공간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분석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이성 근접 행렬(Dissimilarity Proximity Matrix)을 이용하여 변수간 관계에서의 숨은 구조를 도해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특히 MDS에서 군집이란 저차원의 좌표평면상에서 상대적 위치가 현저히 가깝다는 뜻인데,  $n \times n$  행렬에서 미시적 행위자들의 특정한 관계맺기 행태를 거시적으로 볼 경우 하나의 동질적인 덩어리를 이룬 것을 말한다. 즉, 이 연구에서

21) 이 연구에서는 이를 편의상 ‘영역 간 네트워크’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달리 활동영역이 유사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는 ‘영역 내 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론에서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네트워크가 기존의 설명변수들보다 의미를 가지려면 영역 간 네트워크의 효과가 더 커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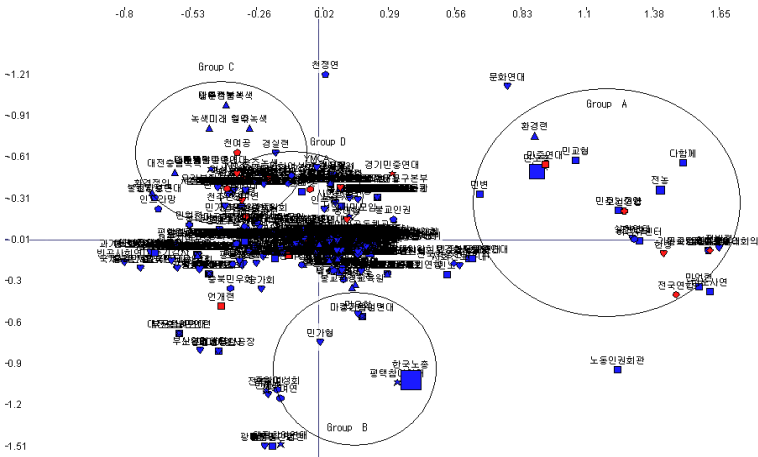
22) 다차원척도분석의 공식은 위의 대응분석 공식과 같다. 다만, 2개의 변수를 1개의 변수로 치환하여 보여준다.

23) c-MDS는 노드들의 상관계수 값에 따라 클러스터 구조를 전체적으로 배치(configuration)하는 것으로 조직 간의 관계에 숨겨진 이면을 재현하는 방법이다(Borg and Groenen 2005). 여기서 배치라는 것은 좌표평면에서 노드 간의 상대적 유사성 또는 이질성에 따라 전체 노드들의 상대적 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24) 여기서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위조직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구성체이어야 하나 각 조직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MDS는 미시적 행동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이며 군집은 이를 통해 드러난 결사체들의 구조화된 연대이다. 분석결과는 <그림1> 처럼 자료원 자체를 임의의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림3>과 같은 구조적 지표들을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한 결사체들 사이의 군집화 양상



- \* A집단[노동/정치 부문 등]: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의 연합단체들 (주요 역량단체 군집)
- \*\* B집단[노동/정치 부문 등]: 한국노총과 소수의 연합단체들 (A집단과 이념적 거리감 있음)
- \*\*\* C집단[환경/지역사회 부문]: 집단 내 네트워크 중심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지표)
- \*\*\*\* D집단[여성 부문 등]: 약하게 분화된 소수자 운동 단체
- † 크기[회원수]: 도형의 크기
- ‡ 모양[활동영역]: 사각형(노동), 삼각형(환경), 원형(평화, 여성) 등
- § 색깔[푸른색:단위조직, 붉은색:연합조직]

결과에 따르면 앞서 <그림3>에서 지위 지표가 높았던 일부 시민사회 활동영역들이 주요한 역량 단체의 군집화에서는 별개로 작동한 결과임이

드러났다. 전체 군집은 대략 4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A그룹의 단체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교협, 민중연대, 환경연합, 다함께, 전농, 전여농, 보건연합, 실천연대, 한총련, 전빈련, 반미여성회, 민언련, 스크린쿼터, 전국연합, 외노협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에 B그룹의 단체들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평택 참여연대, 경기 민언련, 부산 민언련,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연대, 민예총, 민가협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로 지방의 민언련과 참여연대가 주를 이루었다. C그룹에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부산녹색, 인천녹색, 원주녹색, 녹색미래 등의 환경단체와 지역의 민중연대가 주로 자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D그룹은 여연(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약하게 밀집하고 있다. A그룹은 주로 저명한 연대단체들 위주로 형성된 군집으로 노동, 정치, 통일,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논제에 걸쳐 있으며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었다. B그룹은 A그룹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규정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C그룹은 지역의 하부단체들이 연대한 환경단체들이며, D그룹은 약하게 분화되어 있지만 여성단체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및 지역사회 활동영역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영역 내 네트워크가 활발했던 것이며, 오히려 핵심적인 역량 단체는 노동/정치 영역에서의 영역 간 네트워크가 군집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결국 <그림2>의 응집된 연결망에 내부적 층화가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과 이념투쟁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가장 넓게 분포하면서 긴밀한 참여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연합체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결속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환경 단체들과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군집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민사회 지형도는 한편으로는 노동과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투쟁의 성향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 지역사회 운동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건참여 네트워크에는

단체의 활동목적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연대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발적 결사체가 결합하는 것은 조직의 활동목표가 유사한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네트워크에서의 군집화와 논제의 이념적 지향 등도 고려되는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영역은 단체의 개별적 속성(설립연도, 회원수, 예산규모)과 네트워크(지위, 중앙성, 등위성<sup>25</sup>)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즉, 결사체 네트워크는 조직 내 활동으로만 국한할 수 없고 조직 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영역은 활동영역(환경, 노동/지역사회, 여성/건강, 지역사회)과 시대(1990년 이전/현재)에 따라 합리화된 군집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기회구조의 변동과 시민사회 위기론에 따라 이러한 주요 역량 단체들 간의 군집화는 앞으로도 중소규모 결사체들이 이합집산(離合集散) 하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5.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시민사회에 대한 함의

오늘날 사회운동 이론에는 ‘정치적 기회 구조’(McAdam 1996; Meyer 2003)의 영향과 ‘프레이밍의 형성’(Benford and Snow 2000)이 강조된다. 사회운동이 국가와 제도에 배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논제 만들기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Goldstone 2003). 그런데, 기존의 거시적인 이론들에 대

---

25) 연구에 이용된 구조적 등위성의 산출 방식은  $d_{ij} = (\sum (Z_{iq} - Z_{jq})^2 + \sum (Z_{qi} - Z_{qi})^2)^{1/2}$  와 같다(Wasserman and Faust 1994). 이것은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같은 역할 집단을 하는 행위자들의 묶음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한 비판이 점차 제기되면서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접근이 새롭게 대두되었다(Goodwin and Jasper 2003). 그러나 이들의 연구대상은 주로 초국적 사회운동의 문제에 집중되었다(Keck and Sikkink 1998; Sanjeev et al. 2002; Tarrow 2005). 사회운동에 대한 전지구적인 사례는 다양한 의미를 주지만 지역사회의 문제와 분리될 수는 없다. 더불어 하나의 국가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조직의 연대활동을 무시할 수 없다. 운동은 활동가들의 참여와 조직간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체들은 일련의 연합 과정을 통하여 사회운동의 주체가 된다(Osa 200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회운동의 관계적 연구가 최근 들어 시도되었다.

우선 윤민재(2006)는 사회운동단체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연대와 배제, 신뢰와 불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념적 구분을 하여 보수와 진보 단체의 조직형태, 운영방식, 연대를 비교하였는데, 보수단체의 연고적이고 온정적인 동원에 비해 진보단체는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더 효과적인 동원역량을 발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은수미(2006)는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집단의 연대강화와 연대약화의 효과를 추적하였다. 특히, 연대와 상징의 연결망을 중첩시켜서 연계는 강화되나 연대는 약화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포섭과 배제의 성격변화를 지적한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은수미 2004). 즉, 노동 및 시민단체들 간에는 범위가 넓은 수평적 연결망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노동조합 간에는 집중적이고 다소 배타적인 연결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노동계의 담론이 사회개혁적이 아닌 노동 관련 논제 만들기로 집중되게 한다는 주장이다. 1991년과 1997년의 민사회영역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최근의 노동단체간의 연대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는 중심성이 분명하게 소멸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이 노동운동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윤상철(2005b)은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활동가와 조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운동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존재조건과 분립양상을 드러내고 사회운동조직들의 연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는 활동가들의 세대에 따라 연대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2003년 <한국민간단체총람>을 이용하여 111개의 단체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그리고 핵심 사회운동조직 40개에 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에서 중심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운동연합, 한총련, 전국연합,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범민련, 녹색연합, 전농이 위치하였다. 반면에 외곽에는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한국여성민우회, 전노협, 전대협, YMCA 등이 위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활동가들의 단체 지명도 인식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와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

이 논문은 2005년의 공동 참여 네트워크 자료 중에서 강한 연대를 추출하여 사회운동의 관계성과 구조화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위의 선행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단체의 활동영역에 따른 이념적 지향에서 진보단체의 수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1990년대를 전후로 노동·정치영역의 단체들이 변동하면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설계 및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함으로써 고유한 경험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단체들의 활동영역과 시대에 따른 네트워크의 군집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1990년 전후로 설립된 단체들의 속성 지표와 네트워크 지표를 비교하였다. 정치적 변동을 통해 시민사회영역에서 연대의 준거가 변화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기존의 이념적 지향에 기반한 분류를 다각화된 논제에 따른 활동영역으로 대체하면서 노동조합 중심의 분석을 환경, 노동/정치, 지역사회, 여성/건강의 영역 간 비교로 설계한 것이다. 즉,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 시민사회 전반의 네트워크와 군집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포착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그 결과 ‘행위자들의 연결 조절에 의해 변화된 일련의 양상’(Emirbayer and Goodwin 1994)이 드

러났다.

분석내용에 따르면 시민사회 결사체들은 조직속성 변수(설립연도, 회원수, 예산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네트워크 지표(지위, 등위성 등) 차이를 보였다. 2005년 현재 지위지표가 높은 단체들은 환경 및 지역활동 영역의 결사체들이거나 여성 단체일 가능성이 컸다. 관계맺기는 그 선점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만을 추출하여 정교화한 결과 상대적으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환경 및 지역 단체들의 중심성이 더 강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이끌었던 노동/정치 영역의 단체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네트워크 효과가 없었으며,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은 예산규모가 영세하였고 다만 90년대 이후에 회원수가 다소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도의 결과는 시민사회 내부의 군집화가 몇몇 거대한 노동/정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사건참여가 조직의 형태나 활동내용에 따라 구성되기도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정한 군집화 구조에 영향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영역은 논쟁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며 이러한 논제의 변화에 따라 자유로운 합종연횡(合從連橫)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직의 역량과 무리의 질서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그것이 논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관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은 단위조직에 맡겨져 있다. 단위조직의 편차는 다양하게 시민사회 영역을 구성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시민사회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활동영역에 따른 분화현상이다. 이것은 90년대 이전부터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환경과 지역사회 분야의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는 노동·정치 영역의 양면성이다. 이 분야의 조직들은 비록 90년 이후 상당한 조직 확대를 이루었으나 이것은 회원수의 측면일 뿐 90년대 이

전부터 설립되어 민주화를 이끌었던 전통적 단체들은 영세한 예산으로 존재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노동·정치 영역 내부의 군집화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연합단체들은 시민사회영역을 대변하는 가장 큰 군집으로 강한 조직영력을 바탕으로 논제를 만들고 이들을 조직화한다. 즉, 활동영역에 의해 분화된 시민사회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가장 활발한 중위동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생겨났고 <그림3>의 지위지표는 이를 반영하였다. 결국 시민사회 영역의 논제는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군집화된 주요 역량 단체이거나 그들과 네트워크를 할 경우 상당 부분 증폭되는 정치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사회 영역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연대와 배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위기를 진단하였다(은수미 2004; 은수미 2006; 윤민재 2006). 물론 네트워크 지표를 계량분석의 설명변수로 이용할 경우 그 결과는 상당히 복잡하게 도출되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Wasserman and Faust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참여 네트워크는 현재의 시민사회 영역을 위기라고 볼만한 특별한 단서를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인 연대와 논제 만들기를 통해서 미시동원과는 다른 층위에서 중위동원의 기제가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물론 80년대 정치 민주화를 이끌었던 단체들은 90년대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으나 환경영역의 단체들은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여 집합성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단체들은 90년대 이전에 설립된 국가 주도의 단체들보다 위계성 지표가 유의하게 낮아져 실질적인 풀뿌리 단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으로 결사체들이 논제형성을 위하여 중위동원을 한 결과 시민사회에는 활동영역이 유사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와 이질적인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이미 설립되었던 환경 및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내부의 네트워크가 발달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노동/정치 단체들은 집단 내부의 네트워크 보다는 소수 연합단체들의 집단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세력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정치과정론과는 별도로 사회운동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 영역의 매개적 특징과 결사체들의 협의적 지위를 고려할 때 ‘합리적 행위로서의 사회운동’(McCarthy and Zald 1977)과 이것의 ‘정치과정론적 접근’(McAdam 1982)이 곧바로 운동의 결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 구성된 미시동원은 중위동원을 통해 조직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미시동원의 기제는 변형되거나 그 동일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위동원 네트워크는 정치기회구조와 자원동원이론, 그리고 프레이밍 형성과는 별도로 사회운동론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과정론이 가진 구조주의적 해석에 대하여 관계적인 접근을 제시한다(Gould 2003). 그러므로 시민사회 영역의 네트워크 군집이 발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표준화된 경험 연구가 향후 요청된다 하겠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자료구성과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탐색적 분석의 결과 파악된 주요한 군집들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다.

## 6. 결론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관계맺기를 통해 그들의 논제를 드러낸다. 이것을 중위동원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시민사회 영역에는 군집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고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다양한 경우에 이러한 군집화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의 군집화가 이루어진 첫째 기준은 활동영역에 따른 분화로 90년대 이후부터 환경과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기준은 노동/정치 영역의 변동으로 90년 이전에 설립된 소규모 비공식 단체들은 대체로 쇠퇴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은 전반적인 회원수 증가를 통해서 위세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준은 앞의 두 기준을 가로지르면서 형성된 주요 역량단체의 군집화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연합단체들의 조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의 분절은 결사체의 활동이 미시동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논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중위동원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적인 공론장이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집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치과정론에 대하여 새롭게 등장한 주제인 사회운동조직의 네트워크 양상을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진단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특히, 정치기회구조와 같은 거시 구조적인 접근에 대하여 단위 조직들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시민사회가 구성되는 양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프레이밍도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사체들의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조직들(SMOs)의 핵심 역량을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적합한 가정이라면 분석결과 공식적 활동영역을 가로지르는 역량 단체들의 군집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활동영역 뿐만 아니라 역량 단체들의 군집화 양상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별 결사체들의 조직역량 뿐만이 아니라 사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이기도 하였다. 즉, 중위동원은 결사체의 기회 또는 제약조건이었다. 비록 이 연구는 단면 연구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시민사회 결사체의 전체 지형도를 통해

일원화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추후의 평가자료 생성을 위한 방법론적 함의를 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이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일어난 국가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 지형이 탄생한다면 이러한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이 시민사회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늠하는 가설 제안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적 방법론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결사체들의 연대활동이 갖는 거시구조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각 부문이 갖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계속 검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준기. 2006.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상필. 2001. 『NGO와 현대사회』. 서울: 아르케.
- 신광영. 1996.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형성.”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80-123.
- 시민의 신문. 2002. 『한국민간단체총람』.
- 윤민재. 2006. “한국 사회단체의 연결망 생성과 사회적 자본.”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69-104.
- 윤상철. 2005a. “현실 사회운동의 분출과 연구의 상대적 지체(2000~2004).” 『경제와 사회』. 65. 73-95.
- 윤상철. 2005b.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분립과 중앙집중성.” 『경제와 사회』. 66호 39-71.
- 은수미. 2004. “2001년 한국의 노동연결망과 노동정치: ‘관계와 상징의 연결망’을 통해 본 포섭과 배제의 노동운동 정치.”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89-139.

- 은수미. 2006. “연계강화, 연대약화: 사회운동의 관계맺기와 한국 시민사회.”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17-256.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서울: 나남.
- 주성수. 2004.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주성수 편. 2006. 『한국 시민사회지표: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서울: 아르케.
- Benford and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 Borg and Groenen. 2005. *Modern multidimensional scaling : theory and applications*. 2ed. NY: Springer.
- Breiger, R. 1974.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 *Social Forces*, 53. 181-189.
- Diani, M. 2003a. “Introduction: Social Movements, Contentious Actions, and Social Networks: ‘from metaphor to substance?’” in Diani and McAdam(ed.).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1-18.
- Diani, M. 2003b. “Leaders’ Or Brokers? Positions and Influence in Social Movement Networks” in Diani and McAdam (ed.).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105-122.
- Emirbayer and Goodwin. 1994.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411-1454.
- Gerhards and Rucht. 1992. “Mesomobilization: Organizing and Framing. in Two Protest Campaigns in West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555-595.
- Goldstone, J(ed.). 2003. *States,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win and Jasper. 2003. *Rethinking Social Movements*. MD: Rowman & Littlefield.
- Gould, R. V.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716-729.
- Gould, R. V. 2003. “Why do Networks Matter? Rationalist and Structuralist Interpretations” in Diani and McAdam (ed.).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2233-257.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Hamilton L. C. 1996. *Data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a first course in applied statistics*. Belmont. CA: Duxbury Press.
- Keck and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UK: Cornell University Press. 1-38.
- McCarthy and Mayer.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1212-1241.
- McAdam, D.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 1988. “Micromobilization Contexts and Recruitment to Activism.”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25-154.
- McAdam, D. 2003. “Beyond Structural Analysis: Toward a More Dynamic Understanding of Social Movements.” in Diani and McAdam (ed.).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281-298.
- McAdam, McCarthy, and Mayer.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yer, D. S. 2003. “Political Opportunity and Nested Institutions.” *Social Movement Studies* 2(1). 17-35.
- Osa M. 2003. “Networks in opposition: linking organizations through activists in the Polish people’s republic.” in Diani and McAdam (ed.).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77-104.

- O'Neill, M. 1989. *The Third America: The Emergence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United States*. CA: Jossey-Bass Inc. Publishers.
- Salamon, L. M. 1987. "Partners in Public Service: The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Walter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CT: Yale University Press. 99-117.
- Sanjeev, Riker, and Sikkink. ed. 2002.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Networks, and Norm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ies: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Tarrow, S. 2005.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4.
- Walzer, M. 1998. "The Idea of Civil Society." In E. Dionne (ed.). *Community Work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i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29-143.
- Wasserman and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Clustering Appearance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Its Determinants: Coalition Networks among Korean  
Voluntary Associations in 2005

*Min-Soo Jung*

The collaboration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the civil society is called mesomobiliz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lustering of the civil society, which is the result of networking through the mesomobilization of the associations.

This research employed the data obtained from “Participation Network of Korean Civil Organizations in a number of issues during 2005” published by <NGO Times>. It collected the records of the collaboration of associations during the year 2005 and transformed them into the matrix of the form.

A collaborative network showed distinction by both attributive effects and the network effects.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showed four remarkable clusters in civil society. Concerning attributive factors, the associations established before '90s in the labor/political fields hold less budget scale than the reference group( $B=-0.614$ ; 95%CI: 0.296-0.989). Concerning network factors, collective index( $B=0.008$ ; 95%CI: 1.003-1.013) and hierarchical index( $B=0.005$ ; 95%CI: 1.002-1.007) showed high values in the environmental fields and hierarchical index( $B=0.005$ ; 95%CI: 1.003-1.007) in local community fields.

These clusters are affected by several important factors: First, differentiation by its domain of activity, that appears gradually in

environmental and local community fields from '90s. Second, diastrophism in the labor/political fields, meaning that small informal associations before '90s have been merged into a large cluster of ideology struggle in the public domain.

Keywords: Social Movements, Civil Society, Voluntary Association, Mesomobilization, Network Analysis, Korea